전남도, 재생에너지로 인구소멸 대응

전국 첫 '햇빛연금' 시행
인구 늘어난 신안 안좌면서
수산업 공존방안 모색 간담회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전단지의 안정적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및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주민 이익공유 증대 등 수산업 공존 방안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 '햇빛연금'을 시행 이후 인구가 늘고 있는 신안 안좌면을 방문, 주민과 안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주민 이익공유 증대와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간담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통한 인구소멸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안좌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햇빛과 바람을 이야기해요'를 주제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인구소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또 신안군 대표 어민단체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입장에서 바라는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안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나 안좌면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2천988명에서 2023년 4월 기준 3172명으로 6.2%(148명) 늘었다. 안좌면은 태양광 발전 312MW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원을 받는 지역으로 전남도는 안좌면의 이례적 인구 증가에는 햇빛연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어민단체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월엔 신안군,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어민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개별 어민단체와도 발로 뛰는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100(RE100) 기업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인구소멸·고령화 시대에 정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기존 재원의 효율적 투입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재정 투입 없이 고군분투하는 인구소멸 대응 시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생태계 복원·어족자원 보호 온힘

완도 해역 대하 500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달 31일 완도 해역에 해양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대하 5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득량만 해역에서 확보한 어미에서 수정란을 받아 키운 1.2cm 크기의 건강한 어린 새우다. 방류 후 먹이가 풍부한 연안에서 성장해 가을철 계절 특산물로 어업인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인 대하는 담백한 맛으로 인기가 많고 글리신 함량이 높아 단맛이 난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뼈 건강과 원기 회복에 좋은 수산자원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줄어드는 대하 자원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총 2억600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대하는 방류 후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 성장이 빠르며 생존율이 높아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꾸미, 갑오징어, 보리새우 등 경제성 있는 고소득 품종 방류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개발공사, 수익금 33억 지역사회 기탁

2020년부터 매년 순익 10% 기부
지역사회 공헌·상생나눔 실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금 33억원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나눔 가치 실천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기탁 분야를 기존 인재육성기금 2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 외에 복지기동대 지원금 3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선 세계적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남 청소년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비롯해 전남 특화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 및 개발이익 환원 마련에 전남도와 협력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고흥서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전남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지난 5일 고흥 동강면 경로당에서 추진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고흥군에서 주최하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첫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 참여 어르신과 고흥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진〉

고흥군은 자동심장충격기 법적 의무 설치기관이 아닌 마을 경로당에도 자체 예산 43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등 도민 생명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때문에 전남도는 지난 2월 추진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해 22개 시·군에 전파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장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하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며 "도민 생명 보호에 주안점을 둬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 직원 대상 상반기 정보보안 교육

전문가 특강·행동요령 중점

전남도가 지난 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정보보안 교육'을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이번 교육은 전문가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 국민 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운영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안교육원에서 ▲최근 국내외 사이버공격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스마트폰 해킹 사례 전파, 피해 방지 및 관리 방법 등을 강의해 직원 보안 의식과 업무 역량을 높였다. 또 정보통신사고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분야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철저한 보안의식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도록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정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농업박물관 선조들 문화·생활 유물 전시

개관 30년 기념 소장품 공개전
의식주·전통놀이·과학 등 180점

전남도농업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 수집 소장품 공개전'을 개최한다.

농업박물관은 199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중 문화적 가치가 높고 선조의 생활상을 실감할 유물 180점을 선정해 의식주와 전통놀이, 과학과 산업, 기록물로 주제를 분류해 전시를 구성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공지능 발명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선조의 생활 모습과 놀이문화, 발명품 등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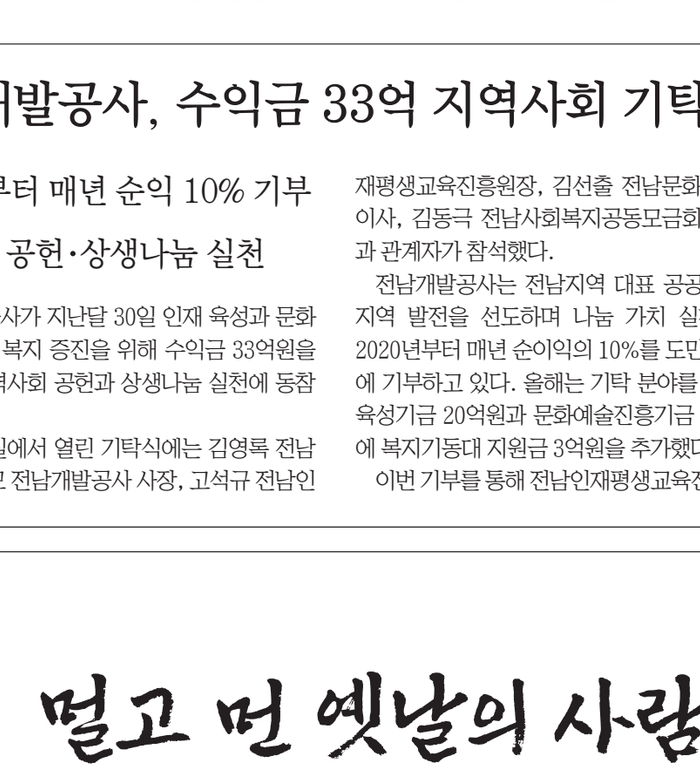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는 대표적 유물은 의식주 분야에선 갓집·조바위·남바위·설피, 길요강·조족등·벽돌 틀 등이고 전통 놀이와 과학 분야에선 고누·썰매, 약연·조석일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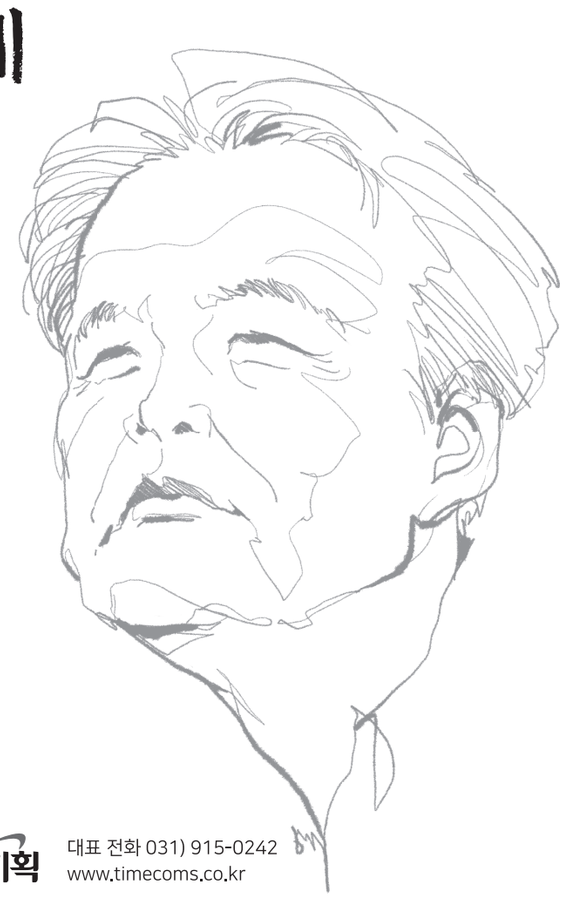
특히 조석일구는 바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에 따라 조수(물 때)의 시각을 알 수 있게 만든 희귀품이다.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 소장품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은 선인들의 지혜와 멋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